

한 중국 지식인에 대한 단상

-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류권닝(劉軍寧) -

김도희*

‘아리랑’의 서문에 보면 님 웨일즈가 김산을 만날 때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국의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여류 작가는 상해 도서관에서 자신이 빌리고자 했던 사회주의 서적을 먼저 빌려간 한 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 청년이 당시 일본의 압제 하에 있던 조선반도에서 온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알게된다. 님 웨일즈는 비 오는 날 자신의 거처로 찾아 든 이 식민지 청년의 눈빛이 형형 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이번 중국 현지조사에서 류권닝을 처음 대면하면서 님 웨일즈가 김산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혹 이런 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본 첫 느낌은 강렬했고 눈빛에 총기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형형 하게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평소에 류권닝에 대해 갖고있던 생각이 혹은 편견이 나타낸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님 웨일즈도 그런 선입관으로 김산과의 만남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류권닝이 중국 지식계와 해외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1월 창간한 『공공논총(公共論叢)』의 편집장을 맡으면

*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서부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는 이 창간호에 실린 글을 통해 푸코크의 '공화적 자유'를 강조했고 헌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 법치, 공화가 필수 조건이며 국민들은 이의 실현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이미 그의 행보가 관변 지식인이 아니라 저항적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준다. 이후 그는 민주와 관련된 글들을 『자유주의 평론(自由主義評論)』 등의 잡지에 기고해 왔고 중국 대학생들의 무비판적 자세를 자유와 함께 몰락을 자초한 정신의 상실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2000년 그는 만성(萬聖)서점에서 주최하고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강연으로 인해 상부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근무하던 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의 연구원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체류하다 2002년 여름에 다시 돌아와 문화부 소속의 문화연구소에 있다.

현재 많은 반체제 중국 지식인이 있고 특히 6.4 천안문 사건 이후 망명한 지식인들은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연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체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류친닝에게 호기심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가 지식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단절된 활동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내는 적극적 역할을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작년 『전략과 관리(戰略與管理)』에 게재한 연방주의 관련 논문은 단순히 20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그는 이번 좌담회에서 16대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은 포스트 공산주의로 접어들었고 이는 공산주의와 이전 동아시아 작은 용들의 경제적 기적을 이뤄낸 자본주의적 권위주의(국가자본주의)가 혼

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가 더 이상 실자리를 잃었으며 권력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공산당은 스스로 공산주의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당내민주를 개혁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량(양적 증가) 개혁과 당내민주를 통해서 공산당의 합법성을 얻어낼 수 없으며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체제의 근본적인 핵심에 대한 급진적 개혁과 사회민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류권닝은 역설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가 공산주의에 대해 너무 조소적이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과연 현 상황에서 밑으로부터 혹은 지식인의 대자적 역할에 의해 가능한 사회민주화가 어떠한 형태로, 어느 만큼 시도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답변을 했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 중에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이 7, 80년대 한국적 상황에서 노력해왔던 우리의 지식인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나는 류권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데서 중국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의 견해에는 자본주의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가 빠져있으며 중국의 미래가 자본주의의 단점과 장점에 대한 선택이라는 그의 주장에는 중국 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했던 그 길고 지난한 뒤척임의 몸부림이 잊혀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님 웨일즈가 만난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지만 내가 만난 그는 자유주의자였다.

어제는 80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가 주관한 포럼에서 공산당은 일당통치를 폐기해야 하며 이는 공산당이 민주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리선즈(李慎之)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보며 류권닝이 1998년에 편집한 『북경대학 전통과 근대중국(北京大學傳統與近代中國)』에 리

선즈가 쓴 서문을 떠올렸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의 글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공공영역의 실현을 주장한 류권닝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이를 류권닝이 말한 노력의 한 단면으로 본다면 그와 리선즈 등 몇몇 지식인들의 글과 발언은 양심 있고 깨어있는 지식인이 중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한다. 비록 그의 이념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제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가 강조되는 중국에서 권력의 힘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의 모습에서 중국의 희망을 발견 한 느낌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걸까!